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

차남현¹ · 서은주²

강원대학교 간호학과¹, 대구보건대학교 간호과²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Expression and Self-esteem in Nursing College Students

Cha, Nam Hyun¹ · Seo, Eun Ju²

¹Department of Nursing, Kanwon University, Samcheok
²Departmen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expression and self-esteem in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s:** A total of 297 subjects aged between 18 and 28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 to 25, 2011 using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WIN 15.0. **Results:** Differences in anger ex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iolent attitude depending on gender ($t=3.003, p<.01$). Violent action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year in school ($F=3.279, p<.05$) and whether there is a dual income families ($t=-2.23, p<.0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depending on year in school ($F=4.553, p<.01$), school record ($F=15.18, p<.001$) and the economic status of the parents ($F=4.878, p<.01$).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violent attitude and violent actions, except between violent actions and self-esteem. 10.3% of the variance in violent actions was explained by violent attitude, self-esteem and school in year and perceived acceptance.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useful in understanding the anger express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developing more specific programs to improve personality and self-control of the mind.

Key Words: Students, Nursing, Anger, Self esteem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분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런 감정이다. 또한, 분노는 인간의 감정 중 부정적인 정서로 분류되지만, 개인으로 하여금 위협에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여 해로움을 감소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분노는 인간에게 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며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므로 적절한 분노의 표현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ark, 2010).

분노표현은 분노표출, 분노억압, 분노조절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은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이며 분노조절은 기능적인 행동으로 분류된다(Gottlieb, 1999).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은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질환을

주요어: 간호대학생, 분노, 자아존중감

Corresponding author: Cha, Nam Hyun

Department of Nursing, Kanwon University, 346 Hwangjo-gil, Dogye-eup, Samcheok 245-905, Korea.
Tel: +82-33-540-3363, Fax: +82-33-540-3369, E-mail: yeoreo@kanwon.ac.kr

투고일: 2012년 10월 17일 /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13일 /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24일

가져오는데, 분노가 지나치게 표출되거나 부적절하게 표현되었을 때는 인간관계가 악화되며 분노가 억제될 경우에는 부정적 행동과 정서로 대치된다(Cho, 1991). 즉,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부적절하게 표현될 경우 신체적·심리적 불건강을 초래하는데, 분노의 억제 및 회피반응은 불안과 우울, 자아존중감 저하, 신경증과 같은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나 고혈압, 심장병, 관상동맥질환, 암과 같은 신체적인 질환을 유발한다. 반면에, 분노의 과도한 표현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노의 적절한 표현은 신체적, 심리적 안녕 유지에 필수적 요소이다. 따라서, 분노 표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노표현에 대한 인간의 반응행동이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으로 표출되는가 문제라 할 수 있다.

초기 성인기에 있는 대학생은 몸이 성숙하면서 독립적인 역할을 원하나, 완전한 정신적·경제적 독립이 늦어짐에 따라 자율성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적응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 처한다. 또한, 이 시기는 심리적 갈등과 역동으로 분노가 발생하는데, 분노는 주로 낮은 자아존중감, 불안정한 가정 및 학교환경, 상실감, 좌절감 등과 관련이 있다(Jeon, 2002). 높은 수준의 분노는 난폭한 말투와 행동으로 표출되면서 적대감과 공격성을 유발하여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Compas, 1987).

간호직업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다양한 의료진을 대하는 서비스 직업만큼,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대인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수시로 발생하는 갈등과 분노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Prager, 1991). 적절한 분노표현은 공격행동의 감소와 사회적 관계의 유지에 도움을 주는데, 분노 억압수준이 높은 사람은 억압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자기 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이 낮고, 분노통제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다(Jeon, 2002). 자아존중감이 불안정하면 일상생활의 결과를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것으로 지각함으로써 분노하게 된다.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은 자신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법이 미숙하여 분노를 폭력, 우울증,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분노는 학업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분노와 적대감을 많이 보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진로선택,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의 문제는 학습능력을 저하시켜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Kwag & Sung, 2009) 원만한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간호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Jang, 2002).

간호대학생은 간호교육을 통하여 수준 높은 질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간호대학생들이 실습에서 배운 지식과 간호기술을 토대로 간호실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간호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런 간호대학생들의 기능적인 분노 조절과 높은 자아존중감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안녕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며, 미래의 간호주역으로서 필요한 정서 및 인격의 바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동의 기본바탕이 되며(Chae, 2001), 간호대학생으로서 건전한 대학생활을 보내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향후 전문직 간호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성장발달과정 중 대표적인 과도기에 속해 있는 대학생 집단 중 감정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행의 주요 유발인자인 분노(Feindler, 1989)에 대한 생각과 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분노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분노조절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자아존중감(Han, 2009)과 분노표현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을 위한 긍정적인 분노표현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에 다니는 간호대학생들이 인지하는 자신의 감정적 분노에 대한 생각과 이에 따른 행동표현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폭력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므로 예비 간호사로서의 정서적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과의 차이를 비교한다.
-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3. 본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간호대학생은 지방 소재 2개 대학에서 수집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분노표현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를 본 결과는 본 연구대상 남학생의 비율이 7%로 충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 남학생의 비율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자가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노표현 척도의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자아의 방어기제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과 오류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관하여 분노표현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설정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폭력에 대한 태도와 폭력 가해행동으로 구성된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S시와 G시 지역사회에 소재한 간호대학 2곳을 편의 선정하였다. S시 간호대학은 280명의 재학생 중 110부를, G시 간호대학에서는 400명의 학생 중 240부를 돌려 총 350부를 설문지 응답을 허락한 간호대학생에게 배포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297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고 연구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수준(α)=.05, 회귀분석의 중간 효과 크기인 .15, 검정력(1- β)은 .80으로 선정하였을 때 최소인원이 103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대상자는 총 297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분노표현

신체적 불만, 좌절 혹은 인지적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쾌한 내적경험 상태의 발현으로(Kim, 2007) 본 연구에서는 폭력에 대한 태도와 폭력 가해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도구는 한국정책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폭력가해 행동과 관련된 항목들 중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설문문항을 기초로 하여 Choi (1998)와 Kim (2000)이 작성한 설문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간호계 교수 2인으로부터 설문지의 구성 타당도에 대한 자문을 거쳐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1)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은 Kim 과 Kim (1991)이 개발한 도구를 청소년 중심으로 Choi (1998)가 수정하여 활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문항은 Choi (1998)의 폭력사용에 대한 태도를 기술한 5문항이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하였으며,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성 있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Choi (1998)의 연구에서 나타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3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56이었다.

(2) 폭력 가해 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폭력 가해 행동은 따돌림,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괴롭힘, 금품갈취, 성폭력으로 나누어 한국정책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활용하여 설문지 문항을 작성한 Kim (2000)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연구도구는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돌림에 관한 7문항과 신체적 폭력에 관한 4문항, 언어적 폭력에 관한 8문항, 괴롭힘에 관한 9문항, 금품갈취에 관한 2문항, 성폭력에 관한 문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자주 있었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하여 총 34~17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가해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다. Kim (2000)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s α = .92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00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Tafarodi와 Swann (2001)이 개발한 자아

존중감 척도(Self-Liking/Self-Competence Scale - Revised Version, SLCS-R)를 Yang (2005)이 교육학자의 감수를 받아 번안하여 측정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분포는 최저 16점에서 최고 8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Tafarodi와 Swann (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0$ 이었으며 Yang (200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5$ 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에 대한 프로토콜 교육을 받은 연구 보조원이 설문지를 배부하고 대상자가 스스로 기록하게 하였으며, 설문지 이해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에게 직접 읽어주고 이해시킨 후 답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350부 배부하여 320부가 회수되었고(91.4%),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97부(84.9%)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과 측정변수의 특성에 따라 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 간의 차이검정은 t-test 와 ANOVA, 유의한 효과에 대해서는 Tukey 사후 검정으로 사후 분석하였다.
- 대상자 변수 간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분노표현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을 선별하기 위해 단계적 다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자 276명(92.9%), 남자 21명(7.1%)로 여대생이 많았고 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은 평균 20.76세로 18~28세까지의 범위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은 대부분 중간 성적이었으며(52.6%), 가족서열은 첫째가 160명(54.0%), 막내 93명(31.4%), 중간 36명(12.2%) 순으로 나타났고, 종교는 있다는 응답자가(53.9%) 무교라고 응답한 대상자 137명(46.1%) 보다 많았다. 혈액형은 A형이 119명(40.0%), B형 77명(25.8%), O형 71명(24.0%), AB형 30명(10.2%) 순이었고,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 280명(94.2%)이었으며, 부모와 2세대로 사는 학생이 236명(7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생이 느끼는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라고 한 경우가 219명(73.7%)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181명(60.8%)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 정도

간호대학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분노에 대한 공격적 태도 점수는 25점 만점에 평균 8.37점으로 평균 점수보다 낮았고, 폭력 가해 행동은 170점 만점에 평균 37.5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80점 만점에 평균 57.01점으로 보통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Table 1). 분노표현 방식 중 폭력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항목은 성별($t=3.003, p<.01$)이었으며, 폭력 가해행동에 유의한 항목은 학년($F=3.279, p<.05$)과 부모의 맞벌이 유무($t=-2.23, p<.05$)이었다. 사후 분석을 한 결과, 폭력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았으며, 폭력 가해행동은 1학년 보다 3학년이, 맞벌이를 하지 않는 부모를 둔 대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항목은 학년($F=4.553, p<.01$)과 학교 성적($F=15.18, p<.001$), 경제상태($F=4.878, p<.01$)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을 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2학년 보다 4학년이 높았고,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집안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간호대학생이 낮다고 생각하는 간호대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Differences in Anger Ex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Subjects

(N=297)

| Characteristics | Subcategories | n (%) or M±SD | Violent attitude | | Violent action | | Self-esteem | |
|--------------------------------|-----------------------|------------------|------------------|------------|-------------------------|------------|--------------------------|------------|
| | | | M±SD | t or F (p) | M±SD | t or F (p) | M±SD | t or F (p) |
| Gender | Male | 21 (7.1) | 10.33±3.75 | 3.003 | 38.67±4.75 | 1.257 | 55.95±9.12 | -0.566 |
| | Female | 276 (92.9) | 8.21±3.06 | (.003) | 37.43±4.33 | (.210) | 57.09±8.87 | (.572) |
| Year in school | 1 | 90 (30.0) | 8.60±3.13 | 0.277 | 36.64±3.80 ^a | 3.279 | 57.31±8.13 | 4.553 |
| | 2 | 65 (22.0) | 8.37±3.68 | (.842) | 37.32±3.65 | (.021) | 54.41±10.19 ^a | (.004) |
| | 3 | 79 (26.7) | 8.16±3.15 | | 38.71±5.59 ^b | | 56.35±7.13 | |
| | 4 | 63 (21.3) | 8.30±2.67 | | 37.44±3.77 | | 60.05±9.73 ^b | |
| School record | High achieving | 82 (27.7) | 7.86±2.55 | 2.627 | 37.40±4.41 | 1.742 | 60.39±8.16 ^a | 15.18 |
| | Middle achieving | 156 (52.6) | 8.38±3.16 | (.074) | 37.20±3.91 | (.177) | 57.44±8.28 ^b | (<.001) |
| | Low achieving | 59 (19.7) | 9.13±3.83 | | 38.46±5.43 | | 52.37±9.12 ^c | |
| Rank between brothers | Firstborn | 161 (54.0) | 8.34±3.03 | 0.325 | 37.63±4.44 | 0.520 | 57.49±9.24 | 1.592 |
| | Middleborn | 36 (12.2) | 8.22±2.85 | (.807) | 37.06±3.94 | (.669) | 58.86±8.02 | (.191) |
| | Lastborn | 93 (31.4) | 8.53±3.43 | | 37.37±4.26 | | 55.49±8.54 | |
| | Single | 7 (2.4) | 7.33±4.32 | | 39.14±6.49 | | 56.57±7.93 | |
| Religion | Catholic | 38 (12.9) | 8.68±4.11 | 0.288 | 37.32±3.77 | 0.693 | 56.51±10.31 | 0.533 |
| | Buddhism | 47 (15.9) | 7.98±2.86 | (.886) | 37.81±4.50 | (.597) | 56.79±9.78 | (.711) |
| | Christian | 75 (25.1) | 8.44±3.19 | | 38.03±5.04 | | 56.61±9.11 | |
| | None | 137 (46.1) | 8.36±2.95 | | 37.08±3.89 | | 57.63±8.16 | |
| Blood type | A | 119 (40.0) | 8.35±3.23 | 0.326 | 37.82±4.95 | 1.442 | 57.23±8.94 | 0.175 |
| | B | 77 (25.8) | 8.40±2.66 | (.807) | 37.97±4.54 | (.231) | 56.55±8.87 | (.913) |
| | AB | 30 (10.2) | 8.83±4.49 | | 37.03±3.20 | | 56.33±6.83 | |
| | O | 71 (24.0) | 8.15±2.93 | | 36.69±3.44 | | 57.31±9.68 | |
|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 ≤ Middle school | 17 (5.8) | 9.80±4.49 | 1.277 | 37.27±7.64 | 0.313 | 54.55±8.17 | 0.474 |
| | High school | 150 (50.4) | 8.36±2.83 | (.279) | 37.39±4.04 | (.869) | 57.21±8.42 | (.755) |
| | ≥ University | 130 (43.8) | 8.34±3.45 | | 37.77±4.49 | | 57.11±9.54 | |
| Cohabitation | Parents | 236 (79.4) | 8.39±3.21 | 0.814 | 37.40±4.08 | 1.320 | 57.68±8.60 | 2.470 |
| | Single parents | 15 (5.0) | 9.50±3.12 | (.487) | 39.67±7.30 | (.268) | 52.64±7.38 | (.062) |
| | Parents+Grandpa-rents | 20 (6.8) | 7.85±2.66 | | 37.65±4.49 | | 54.40±10.03 | |
| | Others | 26 (8.8) | 8.00±3.03 | | 37.23±4.59 | | 55.38±10.35 | |
| Economic status of the parents | Live in affluence | 34 (11.6) | 8.36±3.08 | 1.302 | 38.61±5.25 | 1.116 | 60.92±9.26 ^a | 4.878 |
| | Live in average | 219 (73.7) | 8.33±3.12 | (.274) | 37.27±4.10 | (.349) | 56.93±8.32 | (.003) |
| | Live in bad | 44 (14.7) | 8.92±3.66 | | 38.32±5.16 | | 54.92±9.94 ^b | |
| Dual income families | Yes | 181 (60.8) | 8.49±3.36 | 0.815 | 37.11±3.84 | -2.23 | 56.86±9.24 | -0.547 |
| | No | 116 (39.2) | 8.17±2.80 | (.416) | 38.28±5.11 | (.027) | 57.45±8.30 | (.585) |

Table 2. Scores of Subject's Anger Expression and Self-esteem

| Variables | Range (score) | M±SD |
|------------------|---------------|------------|
| Anger expression | | |
| Violent attitude | 5~25 | 8.37±3.16 |
| Violent action | 34~170 | 37.51±0.25 |
| Self-esteem | | |
| | 33~80 | 57.01±8.88 |

4. 대상자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폭력에 대한 태도는 폭력 가해행동($r=.262$, $p<.001$)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자아존중감은 폭력 가해행동($r=-.149$,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지만, 폭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5. 대상자의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를 모형에 넣고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학년, 폭력에 대한 태도와 자존감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 Adj R²은 10.3%였다(Table 4).

독립변수에 대한 상관분석을 한 결과,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케이스 진단 시 절대값 3보다 큰 이상점(outlier) 3개를 제거한 후 앞

의 요인을 입력(enter)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st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1.827로 검정통계량(1.74)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 상관 없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Tolerance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VIF 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폭력적 태도($\beta = .258, p < .001$)이며, 자존감($\beta = -.141, p < .01$)과 학년($\beta = .128, p < .05$)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103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주변상황에서의 분노에 대한 태도와 분노적 생각을 행동에 옮겼는지를 확인하고, 분노표현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확인한 결과, 폭력에 대한 태도와 폭력 가해행동 점수는 낮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대상자들은 대인관계가 불만족스럽고 조화롭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안과 우울, 분노와 같은 심리·사회적인 부적응을 경험할 수는 있겠으나, 분노표현을 행동화할 가능성이 낮고, 긍정적인 사고전환 능력이 높고 긍정적 자기 초점화를 증가할 수 있는(Chae, 2001) 자아존중감 점수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폭력에 대한 태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행동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노표현의 성차가 있다는 일부 선행연구(Kisac, 2009; Moon, & Park, 2008)를 지지한 결과이나, 상반된 의견의 일부 선행연구(Martinez, Schneiderer, Gonzales, & de Toro, 2008) 결과에는 반하는 결과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성차에 관한 분노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통일되게 하나의 의견으로 좁혀 질 수는 없는 듯하다. 따라서, 성차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중 남학생의 구성이 7%에 불과하므로 후속연구 시 남학생의 비율을 증가시킨 연구를 한다면, 분노표현에 성차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좀 더 지지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분노표현에 대해 여대생은 긍정적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남대생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분노행동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낸 점을 고려할 때, 남자는 분노를 충동적으로 표현

Table 3. Correlations among Subject's Anger Expression and Self-esteem (N=297)

| Variables | Anger expression | | Self-esteem |
|------------------|------------------|----------------|-------------|
| | Violent attitude | Violent action | |
| | r | r | |
| Anger expression | Violent attitude | 1 | |
| | Violent action | .262** | 1 |
| Self-esteem | | -.034 | -.149* |
| | | | 1 |

* $p < .05$, ** $p < .001$.

Table 4. Predictive Variables for Subject's Violent Action (N=297)

| Variables | B | SE | β | t |
|--------------------------------|--------|-------|---------|-----------|
| (Constant) | 39.106 | 1.902 | | 20.559*** |
| Year in school | 0.445 | 0.204 | .128 | 2.176* |
| Gender | -1.022 | 0.866 | -.069 | -1.180 |
| Dual income families | -0.870 | 0.466 | -.108 | -1.868 |
| Economic status of the parents | 0.353 | 0.418 | .050 | 0.844 |
| School record | 0.201 | 0.348 | .035 | 0.576 |
| Violent attitude | 0.313 | 0.071 | .256 | 4.381*** |
| Self-esteem | -0.078 | 0.027 | -.175 | -2.831** |

Adj. $R^2 = .103$, $F = 5.533$,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하고 여자는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Howells & Day, 2003)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노반응을 하는 것은 남자가 더 많고 남자의 분노는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Han, 2009; Sigfusdottir, & Silver, 2009)를 고려할 때, 남학생들의 분노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는 체력적 승화와 교육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는 대처 프로그램이 예방적으로 개발되고 적용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노에 대한 폭력 가해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1학년 보다 3학년이, 맞벌이를 하지 않는 부모를 둔 간호대학생이 분노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의 경우 맞벌이를 하지 않는 부모보다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자녀의 기대에 대한 만족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발달 심리학적으로 이 시기는 성장과 더불어 자신의 특성을 스스로 인식하여 자아평가를 하는 시기로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기대에 대한 만족감 충족이 분노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긍정적인 사고 전환을 도와줌으로 정서적·신체적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일반적 특성별 자아존중감 차이에서는 2학년 보다 4학년이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학교 성적이 높고 집안의 경제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이 경제상태가 낮고 학교성적이 낮다고 생각하는 대학생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자아평가 결과가 자신의 기대수준에 도달할 때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Jeon, 2006)는 연구결과를 생각할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사회생활이나 부정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학교성적이 높고 경제적 상태가 좋을수록 자신이 기대하는 만족도를 높이고 자아평가 결과가 긍정적이므로 자아존중감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성적과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Kim (2009)의 연구에서도 학교성적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으로 나타났듯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년도 중요하지만 학교 성적과 경제상태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성적이 낮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대학생은 자아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게 되어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어(Jeon, 2006) 학교생활에 소극적이며 무력감에 빠지기 쉬울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

으로 중요하다는 선행연구(Han, 2009)를 고려할 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무력하다고 느낄수록 분노와 관련된 문제를 잘 일으키게 되므로(Kwon, 1992), 이들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에 대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바이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폭력에 대한 태도는 폭력 가해행동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자아존중감은 폭력 가해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폭력에 대한 태도와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노에 대한 긍정적 사고전환이 높을수록 분노행동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분노행동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본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우나, 일반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분노에 대한 연구(Suh & Yang, 2010)에서도 자아존중감과 분노는 부적 상관성을 보였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노와 공격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이 부적 상관성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Han, 2009)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무력감, 비합리적인 신념을 많이 나타내며, 분노를 많이 경험하고 분노표출과 억제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Seo, 2007)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폭력에 대한 태도를 낮출 수 있는 폭력 가해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공격적인 태도, 자존감과 학년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 Adj R²은 10.3%였다. 따라서 폭력행동이 외현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낮추고 자존감을 높이는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 때 학년을 고려한 차등성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바이다.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 대상자들은 분노표현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상자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일부 간호대학생의 분노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조절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학년을 고려한 긍정적인 사고 전환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적용을 제안하는 바이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증, 알콜 중독, 인간관계 문제, 아동 학대 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심리적 부적응 및 비행 등에 쉽게 빠져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다(Sin,

2010).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하며 자신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능력을 잘 인식하고 주위 환경이나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가지며,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여 성취감을 높일 뿐 아니라 자기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게 되므로 (Reasoner, 1982), 자아존중감 향상은 분노관리와 감정조절을 위한 중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건강한 자아존중감은 다른 방식보다 간호대학생의 분노관리에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분노에 대한 감정표현이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연구이다.

간호대학생은 분노에 대한 긍정적 사고전환과 자아존중감은 높은 반면, 분노를 실행에 옮기는 행동 집수는 낮게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인 초기 성인기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폭력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분노 표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폭력 가해행동은 1학년 보다 3학년이, 맞벌이를 하지 않는 부모를 둔 대학생이 더 높았고, 자아존중감은 2학년 보다 4학년이 높았고,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집안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이 낮다고 생각하는 대학생 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폭력에 대한 태도는 분노행동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자아존중감은 폭력 가해행동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지만, 폭력에 대한 태도와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분노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과 학년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 Adj R²은 10.3%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은 분노표현이 낮고 자아존중감은 높은 대상자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노 감정 조절과 관리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중요하며 자아존중감의 중요 척도인 간호대학생의 기대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학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구성할 경우 자아존중감을 향

상시키고 공격적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학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분노표현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후속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건전한 간호대학생의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임상 현장에서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Chae, Y. K. (2001). *Verification on the model of expression modes and moderating effect of adolescents's ang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Cho, H. G. (1991). *Stress disease and hypochondria about oriental medicine*. Paju: Open books.
- Choi, J. E. (1998). *A study on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adolescent viol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ompas, B. E. (1987). Stress and life event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7(3), 275-302.
- Feindler, E. L. (1989). *Adolescent anger control*. New York: Plenum Press.
- Gottlieb, M. M. (1999). *The angry sel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nger management*. Phoenix, AZ: Zeig, Tucker, & Co. Press.
- Han, D. H. (2009). *The influence of the anxiety, depression, self-esteem on the anger expression type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Howells, K., & Day, A. (2003). Readiness for anger management: Clinical and theoretical issu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319-337.
- Jang, I. S. (2002). *Effect of assertiveness training on assertiveness behavior,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hang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Jeon, I. J. (2002). *The relation of self-control and self-esteem on the adolescent's anger level and anger expression mo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Jeon, S. C. (2006). *The influence of high school students' anxiety and depression on self-esteem-focused on the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in the 3rd gra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san.
- Kim, J. A. (2007). *Influences of parental attachment of children's perception on anger experience and anger expressions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J. H. (2009). *The effects and its management plans of per-*

- ceived family functions on self-esteem and job searching behaviors. -focusing on junior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 Kim, J. H., & Kim, S. A. (1991). Attitude toward violence in Korea.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91(1), 211-219.
- Kim, T. Y.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sports activity participation and violence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sac, I. (2009). Anger provoking reasons on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1, 2202-2206.
- Kwag, O. G., & Sung, K. W. (2009). Effect of lecture on oral presentation on anger expression, assertive behavior,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3), 351-360.
- Kwon, H. J. (1992).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ression and relief of anger by female adolescents. *Chung-Ang Journal of Medicine*, 17(3), 287-299.
- Martinez, Y. A. S., Schneiderer, B. H., Gonzales, Y. S., & de Toro, M. P. S. (2008). Modalities of anger expression and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s in eastern Cub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2(3), 207-217.
- Moon, S. H., & Park, Y. J. (2008). Relation of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trait anger and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4(2), 522-532.
- Park, S. A. (2010). *Effect of college student's perceive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and parenting attitude on anger ex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Prager, K. J. (1991). Intimacy status and couple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4), 272-276.
- Reasoner, R. W. (1982). *Building self esteem: Parent's guide and teacher's guide*.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uh, K. H., & Yang, S. A. (2010). The role of narcissism and self-esteem in psychological stresses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5(4), 653-671.
- Seo, S. G. (2007). Differences in anger thought, belief, expression depending on narcissism and self-esteem level.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3), 719-734.
- Sigfusdottir, I. D., & Silver, E. (2009). Emotional reactions to stress among adolescent boys and girls. *Youth & Society*, 40(4), 571-590.
- Sin, M. S. (2010). *Effects of parent's-rearing attitudes on a communication and a self-esteem of their children-focus on adolescents(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Yangpyeong.
- Tafarodi, R. W., & Swann, W. B. (2001). Two-dimensional self-estee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 653-673.
- Yang, J. Y. (2005). *Effect of attachment style, self-esteem, silencing the self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